이 달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사랑의 편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

언젠가 성탄절 관련 특집 기사에서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12월 25일은 당시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미트라교의 축제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신 날짜나 요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미트라교는 역사적으로 빛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찬란히 발하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별도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태양은 신이 아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분을 섬깁니다. 우리는 빛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십니다.

글 김수정 사모
(광고후원 사암교회 사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131-005-937566 (신협)
172242-51-085114 (농협)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재원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T 033-256-1260 F 033-257-1260
E holycc1972@daum.net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 12월

Vol. 222 201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2007년작 / 30호 M/ oil on cork borard

긍휼 / 작가 김용성

2017 제1회 강원지역 청소년 청년 CCM경연대회 개최하며

다음세대에게 꿈과 비전,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순복음춘천교회는 종교개혁500주년기념으로 제1회 강원지역 청소년 청년 CCM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열방을 품고 전심으로 찬양하라(시 57:7~11)는 주제로 다음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장을 펼치며,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취지는 CCM 찬양을 통해 교회가 연합되고, 청소년, 청년들의 기독문화를 교류하고, 대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강원지역 출신 찬양사역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크리스천의 영적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와 오디션을 겸한 행사로 강원지역 최고의 기독교 찬양축제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찬양사역자를 발굴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세벽이슬 같은 많은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1)

글/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최동용 춘천시장과 기관장 모임 가져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에서는 11월 23일(목) 오전 7시에 세종호텔 소양정에서 기관장 모임을 가졌다. 이번 기관장 모임에는 춘천시청에서는 최동용 춘천시장과 신연균 건설국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유승길 김재중 수행비서가 참석하였고, 춘천교계에서는 박인관 이사장, 신재원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비롯 25분의 목회자와 장로께서 자리를 같이 했다. 조영춘 사무총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사회로 신재원 목사(춘기연 회장, 새춘천교회)의 대표기도, 박인관 목사(춘성본 이사장, 광염교회)의 인사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최동용 춘천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시정 현황을 소개하였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춘천을 '관광과 보육선도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별히 춘천 교회의 역사 건물로 보존되어야 하는 옛 중앙감리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현재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등 2동을 진단 한 결과, 존치가 어려울 정도의 D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그동안 춘천 기독교의 상징적인 건물로 교계에서 회수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 시장의 시정현황이 끝난 후, 춘천 목회자와 장로, 기관장 대표들은 춘천시와 춘천시정, 최동용 춘천시장과 공무원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기도를 드린 후, 춘기연 직전 회장이신 박상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가 있었다. 이후 조찬 교제를 나누고 마무리 했다. 이 모임은 격월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

취재/사진 이은정

춘천성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조영춘 사무차장 최상도 사무국장 이은정 편집국장 이리형 _ 디자인 및 인쇄 로딘어스 lordinus2014@naver.com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 301장)

주의 은혜로 지나 온 2017년_

1월



1월 10일(화) 동부교회
신년교례회



1월 20일(금) 신성감리교회
탈북자종교체험



1월 24일(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3월 1일(수) 신성감리교회
삼일절 연합수요예배

2월



2월 24일(금)
소년원 세례예배



2월 25일(토) 동부교회
강원기독공직자선교대회

12월

12월 3일(주일)
성탄트리점등식예배

12월 16일(토)
제1회 강원지역 청소년
청년 CCM 경연대회



11월 10일(금) 광염감리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회



11월 8일(수) 공간 나눔
춘천선교단체 간사모임



11월 11일(토) 문화예술회관
제31회 춘천연합찬양축제



11월 23일(목) 세종호텔
춘천시장과 함께 하는 기관장모임

11월 27일(월)
북부노인복지관 개관식

11월 29일(수)
춘천교경협의회 총회

11월



10월 11일(수) 호반체육관
예수나라성회



9월 17일(주일)
45주년 성시선교대회
사모세미나 / 저녁집회 / 준비기도회
종교개혁포럼 / 목양장로세미나 / 영상설교세미나
블레싱춘천 / 전도특강 / 성시축구대회



9월 28일(목) 새춘천교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총회



10월 29일(주일) 성광장로교회
춘천장로교연합회 500주년 부흥성회

10월



9월 14일(목)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



9월 28일(목)
춘천기독교연합

9월



8월 17일(목) 목
원로목



매월 둘째 주(월) 주향교회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매월 넷째 주(월) 석사교 하천무대
통일광장기도회 춘천모임

3월



3월 4일(토) 온누리교회
장로교연합 강원CBS선교대회

4월



4월 16일(주일) 순복음춘천교회
부활절연합예배



4월 23일(주일) 동부교회
춘천교경협의회 부흥회



4월 24일(월)
목회자연합회 성지순례 및 여행



5월 29일(토) 효신교회
춘천직장선교대학



5월 31일(수)
춘천남부복지관위탁예배

5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삼상7:12)



6월 11일(주일) 석사감리교회
홀리클럽 21주년 예배



6월 17일(토) 주향교회
GBT 성경봉헌예배



6월 23일(금)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6월 25일(주일) 석사감리교회
블레싱춘천 청년통일컨퍼런스



6월 25일(주일) 순복음춘천교회
6.25 구국 기도회



6월 30일(금)
춘천대첩 참전용사 섬김

6월



7월 8일(토) 문화예술회관
제11회 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7월 16일(주일) 중앙감리교회
예배당 복원예배



8월 13일(주일) 중앙감리교회
72주년 광복절 예배

7월

8월

평화통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역별 춘천 학술회의

10월 28일(토요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역별 춘천 학술회의 참석자



▲ 학술회의 모습

최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유의미한 학술회의(2017. 10.28.토)가 열렸다. 통일부가 후원하고 (사)평화한국과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춘천평화도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역별 학술회의이다.

2017년 현재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어두워 보인다. 소위 안보폭풍, 경제폭풍, 북한폭풍이 충돌하는 절대폭풍이 한반도로 계속 다가오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들은 마초(strong man)의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자국 이익을 위한 자국중심의 정책을 강경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지속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후 역대 가장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상황이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한반도,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제 평화를 위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특히 이 학술회의가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얼마 전 같은 자리에서 세계 유일한 분단 도인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추진하자는 선언(동북아평화포럼, 2017.9.25-27)이 나왔으며, 이와 함께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을 평화도시, 샬롬도시로 선포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강원도와 춘천, 6.25전쟁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강원도는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한의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395년, 태조 4년에 강원도로 명칭 된 이래, 1896년에 춘천이 도의 수부도시로 정해졌고, 광복 후 철원, 화천, 양구 등 9개 군 모두와 인제, 양양 등 2개 군의 절반 이상이 삼팔선 이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6.25전쟁 후 휴전협정으로 7개 군의 상당지역이 수복되었으나, 여전히 강원도는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 도로 남게 되었다.

강원도 춘천은 6.25전쟁 초기, 북한군을 막아야하는 관문도시로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춘천은 상당기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군인들만이 상주하였다가 1953년 휴전이 된 이후에 겨우 다시 주민들이 들어 올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강원도와 춘천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열망이 강한 곳이다. 이러한 배경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술회의가 열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윤재선 교수(한림성심대학교)와 허문영 박사(평화한국)가 회의를 이끌었고, 총 7명의 발표와 4명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박기련 박사(한남대학교, 평화한국 평화연구소장)는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의 참상을 기록한 □나가사키의 종□ 저자 나가이 다카시 박사를 인용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바늘 하나라도 지니면 안 된다"고 말한다. 평화의 시작은 적의(敵意)의 소멸에서 시작된다. 남과 북은 70여 년간 강제된 평화속에서 살았다. tdkeo에 대한 적의를 강요받으며 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스스로 적의를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진 우리들의 비대칭적인 사랑이 요구된다. 주고 받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박기련 박사는 주장했다.

한편 춘천 출신의 전병길 사무국장(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은 "통일 준비의 새로운 모색"으로 □평화산업□을 주장한다. 이는 군용물자를 생산하는 군수산업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평화'라는 마인드에 기초한 서비스업종이나 관련 브랜드를 이용한 사업은 군수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한 제조업과는 달리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마인드에 기초한 컨벤션 사업, 평화마인드에 기초한 교육사업, 평화마인드에 기초한 문화 콘텐츠 사업, 평화마인드를 도시 개발에 접목시키는 사업등 평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넓고 크게 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강병로 논설위원(강원도민일보)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강원도 비전"을 주제로 보다 실제적인 발표를 하였다. 강 논설위원은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다. 특히 평화를 가치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장기 과제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 북미간 대치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참여 속에 성공적인 평화의 제전으로 치른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는 상당부분 누그러질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 토대가 마련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법 마련,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설악산~금강산 일대 세계평화공원조성,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동해 군사분계선 남북 일정구역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철도 단절구간인 경원선복원, 남북교류시 자치권이 부여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영춘 사무총장(춘천성시본부)은 "동아시아 평화벨트 구상"을 발표하였다. 조 목사는 동아시아내 주요국가인 한국(2018), 일본(2020), 중국(2022)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계, 하계 올림픽을 2년에 한 번씩 세 나라가 개최하는 놀라운 일을 주목하자고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올림픽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서로 소통하며 연합을 이루게 할 문화 학술적 어젠다를 가지게 될 때 전쟁은 평화로, 문제는 도리어 기회가 되어 세계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새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소망한다. 이어 최상도 목사(사암교회)는 정약용선생의 평화사상을 통한 평화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병철 목사(성시본부, 부본부장)는 "탈북민 정착성공을 통한 평화모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춘자 전도사(사단법인 장애인사역연구소 평생돌봄, 회장)는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엄기중 박사(기후변화연구원), 이연희 전문위원장(평화도시연구소), 이은정 국장(춘천성시본부), 전홍우 편집인(춘천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글/ 편집부

일본사회연구 1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일본의 가옥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를 제외하고는 관동과 그 남쪽 대부분의 일본가옥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 에어컨이나 난로를 틀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계속해서 틀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대개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보조로 등유난로를 켜기도 한다. 기름 값은 별 차이 없지만 전기요금은 한국의 3, 4배나 높다. 최근 신축 아파트 중에서 한국처럼 바닥 난방과 복층유리 혹은 이중창을 사용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겨울에는 모두 실내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털 실내화를 신으며, 잘 때는 더운물에 들어가 몸을 충분히 덥힌 후에 두꺼운 여러 겹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정말로 춥게 지낸다. 한국사람이 일본에서 살아보면 '이 사람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궁색하게 춥게 사는지 참 이상하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분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삶과 생각을 나누려면 먼저 이들의 삶을 잘 관찰하고 의식구조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교회와 병원, 선교센타와 선교단체 숙소 등 건축의 경험이 많으므로 어디 가든지 건축물을 눈여겨보는 편인데, 특히 2008년 초 4개월간 동경에서 집을 구할 때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을 많이 관찰하였다. 일본에 2005년부터 살기 시작하였지만 그보다 15년 전인 1990년부터 50회 이상 동경뿐만 아니라 큐우슈우, 오오사카, 쿄오토오, 히로시마 등 여러 지역을 노방전도와 선교집회 목적으로 방문하여 일본의 숙소들을 경험하였다.

일본인 부동산 관계자, 건축전문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건축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관동 이남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까지 단열시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겨울에 추워도 영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는 동경날씨에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면 실내온도가 영상 5도 내지 7도 정도 된다. 춘천에서 2004년 분양 받은 서민아파트는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도 며칠 비워두었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온도를 보면 20도 이상이고 보일러를 켜 25도를 유지하여 러닝셔츠만 입고 지내는데 말이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주거환경개선의 사명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일본에서 가능한 주택단열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동경의 우리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차가웠던 창문에 창호지문(쇼오지)을 설치 공사하고 그 외 간단한 단열시공을 하고 나니, 겨울에 밖에서 집에 들어가면 내부온도가 단열공사 이전보다 10도나 높은 16, 17도가 되었다. 완전 성공이다. 이 방법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일본에 온 선교사들은,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고귀한 사명을 가진다. 이분들은 일본에 와서 일본인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위나 더위를 감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편이다.

이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일본에서 선교하려면 당연히 집안에서의 추위를 견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갱년기에 접어든 부인 선교사님들은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주택의 단열뿐만 아니라 온돌과 같은 바닥 난방도 적은 비용으로 설비하고 유지할 방법들을 연구하여 보급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추운 주거환경을 큰 불평 없이 잘 견디어내고 있다. 어떻게 이들은 집안에서의 이러한 추위를 잘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걸까? 또 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배경 요인들이 있다.

첫째로는 자연환경이다. 동경 이남의 지역은 겨울에 추워도 얼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춥다는 것이다. 영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 편이다. 지금처럼 편의를 추구하지 않던 가난한 시절에는 어지간한 추위는 견디면서 살 수 있었다.

둘째로는 전통적 생활방식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불확실성 회피성, Uncertainty Avoidance).

셋째는 집단중심의 계급사회의 경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잘 참고 감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견디는 어찌 보면 운명론적 포기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넷째로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유치원부터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추울 때도 어린이가 내복을 입지 않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정도이며, 초등학교는 겨울에도 짧은 바지로 등교시킨다. 이런 것은 과거 군국주의적 신민교육의 잔재로 볼 수도 있겠다.

앞에서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일본인들은 기후, 문화적 특성과 사회, 교육의 여러 조건들에 의하여 추위를 어느 정도 극복하도록 길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 환경은 인간의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글/ 조은제 선교사(정형외과 의사, 베드로선교센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
자연유치원
원장 이관형(한길교회 권사)
24312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 033.241.5511, 5522

2018학년도 자연유치원 장학생 선발
대 상: 2012~2014년생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전도사 자녀)
특 전: 교육비 전액 지원
기 간: 각 반별 선착순 모집
문 의: 241-5511
참 고: www.jysince93.net



순수 아마추어 남성들로 구성된
아멘코러스 남성 중창단의 네 번째 정기 공연
2017. 12. 3 (주일) 오후 2시
순복음춘천교회 본당



일본 김치선교

처음에 효자교회 김종호 목사로부터 김치선교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이기 때문이다. 요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니느웨는 원수 나라이듯 과거에 한 일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하는 짓도 결코 용납도 용서도 되지 않는 나라 일본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보고 일본 선교사로 가라고 했다면 나 역시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물으실 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항변한다. 이 말은 죽어도 싫다는 말이다.

여하튼 그래도 선교해야 한다는 결론을 맺고 일본김치선교를 시도하게 되었다. 김치선교는 일본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무치 보다 한국 원산지 김치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선교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일본김치선교는 주로 한국에서 일본에 가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효자교회 김종호 목사는 실제로 일본교회에 도움을 주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김치교실을 고안해 냈다. 김치교실이란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며 시범을 보이며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로 일본인들이 죽어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일본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김치를 소개하는 과정과 김치교실을 진행하는 동안에 직,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또한 김치선교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점이다. 교회예산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비용만으로도 선교할 수 있고 하루정도의 관광도 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에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다. 아니 불쌍한 백성들이다. 아마 세상에 일본 같은 나라는 없지 않을까? 미국이나 서구사회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 청결과 질서 그리고 신용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 흘러나온 민족성, 문화가 된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면 정직과 청결, 질서는 기본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나라이다. 신사나 절은 말할 것 없거니와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와 미신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더럽고 가난한 데 일본은 뭔가 안 어울린다. 도대체 뭘까? 나는 일본에 가서야 일본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지만 일본의 청결과 정직은 철저히 이기주의에서 나온 산물임을 알게 되면서 더욱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여전히 그들이 미운 짓을 하지만 말이다

우리 광염교회에서 2016년에 실행한 김치교실을 소개하자면 일본에서는 단지 30명의 회원을 모집(회비는 1천엔)하고 배추와 무만 준비해 놓으면 된다. 우리는 소금을 비롯해 파에 이르기까지 김장을 담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다. 1) 30명을 5조로 나누어 탁자에 나누어 배정하고, 2) 한국 교우대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리드한다. 3) 각조에 한국 교우들이 팀장으로 배치되어 리드에 따라 시범을 보인다. 4) 그러면 일본 참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며 한 과정 한 과정 김장김치를 만든다. 4) 다 마친 뒤에는 편육과 떡볶기를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다. 5) 이때 우리가 한국에서 익혀간 8가지의 김치종류를 나누며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였다.

효자교회에서 신신당부하기를 절대로 질서를 유지하라, 일본사람들은 질서를 존중하고 조용하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김치교실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깔깔거리고 말들이 많은지 우리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김치선교를 성황리 마쳤다. 한편에서는 김치교실을 하고 마당에서는 많은 배추로 김장김치를 부지런히 만들어 김치교실를 마치며 판매를 했는데 다 팔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교회에 대한 관념이 무너지고 좋은 관계를 시작하게 되어 금년에 2차로 가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일본인이 차 전문점을 운영하는데 금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이미 초청한 상태이다. 우리 교회 교우들 역시 일본을 품게 되어 그 자리에서 헌금하여 50여만원을 헌금하고, 각기 작정하여 일본에 다녀온 후 매월 30만원의 선교비를 그 교회에 보내고 있다

나는 이 김치선교에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고 해놓고 관광만 하고 와서 일본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가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김치교실은 일본교회에 희망을 주고 일본인들과 관계를 맺어 줄 뿐만 아니라 한국교우들에게도 선교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 낸다. 이제는 단순한 김치를 판매하는 김치선교로부터 김치교실을 운영함으로서 진정한 선교효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많은 교회들이 이 김치교실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다만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분명 일본 각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고 일본교회도 부흥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하면서 기대해 본다. 이 글을 읽는 목사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글/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신앙칼럼



네 잎 클로버



지난 "스승의 날" 오래된 제자로부터 "네 잎 클로버" 가 찍힌 핸드폰 영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잎 클로버" 는 세 잎 클로버에서 돌연변이 현상으로 생겨난 식물입니다. 잎사귀임에도 그 모습이 꽃처럼 예뻐서 전쟁을 지휘하던 나폴레옹이 네 잎 클로버를 향해 몸을 구부리는 순간 적군이 쏜 총알이 머리 뒤로 비껴가는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꽃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 잎 클로버가 모여 있는 곳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네 잎 클로버를 찾다가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 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잎 클로버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 잎 클로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치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다가 돌아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세 잎(행복)의 아름다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돌연변이 네 잎(행운)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세 잎 클로버에는 기독교적 상징의 뜻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 세 잎의 안정성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행운(네 잎)은 행복(세 잎)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복을 무시한 채 행운만을 찾다가 포기 합니다.

행운이란?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행운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글/ **김승범 목사** (춘천제일성결교회 담임목사)

세상의 만나! 만나보다

춘천 두산 큐벡스

라데나 리조트, 골프장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춘천 두산 큐벡스㈜는 두산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인재의 성장과 자립이라는 주제"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목표 아래 2010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통해 약 1억 6천 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춘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물품 기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두산 베어스 야구관람, 요리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특수학교, 장애인 재활시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동계 연탄봉사 등 지역 내 소외 계층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인 ' 이웃 섬김 '을 말로만이 아닌 이 같은 실천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식구들만 돌보는 게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 책상 의자 후원 한길지역아동센터

글/ **이관형 권사** (자연유치원 원장 / 한길감리교회)

http://cafe.daum.net/dmlt

예습 복습 NO! 문장 암기 NO! 문법 독해 영작 회화가 한꺼번에 OK!

엽집엄마가 쉬쉬하는 영어 비법

겨울방학 특강

기간 : 1.2(화)-2.23(금) 매주 월-금 9:00-15:40

장소: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남춘천역 육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옆)

이런 점이 다른 학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방학때는 서울 등 전국과 춘천 전지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전국구 영어훈련소.
▶ 방학특강 2개월 마치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므로 더 이상 학원 과외 안다녀도 되는 곳.
▶ 사람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언어감각'을 통해 '영어 근본원리'로 훈련시켜서 자연스럽고 쉽고 재밌게 영어를 정복하게 하는 곳.
▶ 14년간 쉬쉬~~~ 하며 가족, 친척, 절친끼리만 소개했던 영어훈련소.

카페(http://cafe.daum.net/dmlt)에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수의 최근 "미라클훈련생 자필 체험수기"(방문 시 원본확인가능)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카페에 방문해 보세요.

언제까지 학원 과외를 다닐꺼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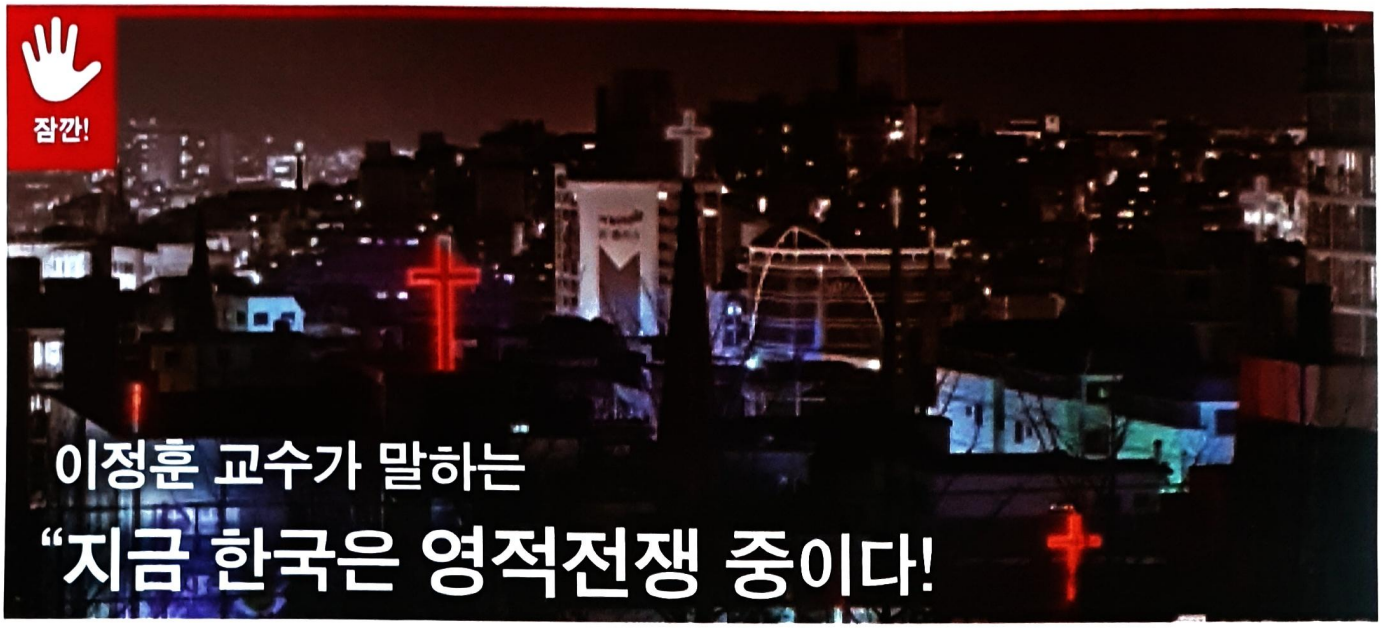
2개월 완성!!

겨울방학 특강(38기) 모집안내

개강 2018. 1. 2(화) 9:00am
기간 1.2(화)-2.23(금) 매주 월-금 9:00-15:40
1일 (6교시), 2개월 학습 및 집중훈련 교습비 : 리틀반 / 주 5회 각360분씩 (교재, 부교재 일체포함)
장소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남춘천역 육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옆)
자격 공개설명회 1회 참석자
대상 중·고·대·공시생·토익 등 성인회화

공개설명회 및 체험사례 발표
1차 : 12월 2일 (토) 오후 5시
2차 : 12월 9일 (토) 오후 5시
3차 : 12월 16일 (토) 오후 5시
4차 : 12월 23일 (토) 오후 5시
5차 : 12월 26일 (화) 오후 7시 30분
참석하실 분은 반드시 문자 및 카톡으로 신청해주세요

Dreaming Mission Language Training 미라클 영어 / 회화 훈련소 010.3510.0691



이정훈 교수가 말하는

"지금 한국은 영적전쟁 중이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이정훈 교수가 마치 그런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반야심경 해설서를 즐겨 읽고 설명해 줄 정도였고, 동대부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더욱 불교철학에 심취하다가 동국대학교에 건학이 넘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군승까지 지냈다. 한국불교가 적극적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그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학을 공부할 만큼 불교에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는 서울대법학과 박사과정을 하면서 진보인사들과 함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설립하여 교회를 공격하여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다. 젊은이들에게 좌파 사상을 주입하여 자동으로 기독교를 혐오하게 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공격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광고 사태가 그 일례이다. 대광고 사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소송으로 이겨서 적잖은 피해를 기독교사립학교에 주었다. 또한 성북구에서 교회와 지역이 연합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교동협의회"를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좌파적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포섭하여 '종자연'의 구성원으로 임명하고, 카톨릭의 정의구현사제단과 연합하여 진용을 갖추어 한국 교회의 영성이 침체되고 무력하다는 틈을 타서 공격 수위를 높여 교회를 무력하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만들어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소탕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기획하고, 사립학교법개정안-지방자치법개정안도 준비해서 교회를 초토화시키는데 앞장을 선 인물이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가던 핍박자 사울을 회심시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듯이 그렇게 교회를 해체시키고 말살하려는 시도를 갖던 이정훈교수를 급작스럽게 만나주셔서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교수의 고백에 의하면 평소처럼 교회를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CTS를 시청하다가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주님을 부르시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 하시오." 하는 순간 혀가 굳어 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러졌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지 알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자비로 나를 살게 해 주신 것인데,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께 대적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 임을 깨닫고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시내를 다니다가도 십자가만 봐도 통곡을 할 정도가 되었다.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경종을 울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이정훈 교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영적 전쟁 중이며, 그 실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도 행전의 폭발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적그리스도인 카톨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했다. 교회라는 제도 속에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안심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가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종교개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종교-정치-문화-경제적 혁명이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신앙의 전통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물신을 숭배하는 타락한 자본주의와는 본질이 다른 위그노로 상징되는 기술과 소명을 기초로 한 도덕적 자본주의를 제도화 하게 되었다. 진정한 인권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이교도들조차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앞세워 공산주의를 등장시켜 사람들을 다시 도탄에 빠지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는 전략을 취했다. 청교도의 영성이 감소되고 타락하는 천박한 자본주의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마오이즘과 문화혁명이라는 4500만을 학살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이데올로기가 출현한다. 음란한 세대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 68혁명이라는 최악의 문화혁명을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것이 결국 GM(젠더 이데올로기)이라는 전략으로 체계화 되어 UN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체제를 전복시키고 소비에트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의 양심과 도덕을 해체시켜 죄의 본성을 향해 돌진하는 죽음의 길을 '인권'으로 포장했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추론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법을 폐기하고 스스로 개와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인간을 나락에 빠뜨린 것을 인간 스스로 자축하고 있다. 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개발 된 것이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좌파 이데올로기 중 가장 진화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전통이 살아있던 유럽의 교회들을 획기적으로 파괴하는데 성공했다. 길고 긴 진지전에서 승리를 목격한 좌파들은 고무되었다. 북미와 어렵게 버티던 나라들이 점령당하면서 이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이정훈 교수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소멸해가고 있는 종교개혁의 영성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이 순교자의 각오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미와 반기독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슬람테러 옹호세력과 범죄파가 모두 동맹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 운동하는 좌파들이 동성애운동을 하고, 동시에 이슬람을 미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주장한다.

이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직시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한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이 진리를 위해 순교정신으로 무장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영적 파워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순교자의 영성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는 청교도의 영성으로 다시 설 수 있어야 이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흑암으로 덮여 노예가 되었다가 복음으로 깨어나 독립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로 세워진 나라이다. 한국에서 청교도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기독교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거리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소리가 전국을 뒤덮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저 인류파멸의 이데올로기와 정치혁명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나라들을 역으로 구할 수 있다.

이정훈 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신 냉전 체제에서 한국 좌파들의 책동으로 한국이 중국 공산당에게 기울면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고 주장한다. 북핵으로 인질이 되어버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좌파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안일하게 방치하는 사이에 핵무기로 우리를 인질로 만들어버렸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리석어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하고 음란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깨워야 한다.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만 주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흑암의 상황을 역전시켜 세계복음화를 이루라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이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편집부



홀리클럽 의료봉사 사역



춘천홀리클럽(김종연 장로)에서는 지역 섬김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봉사 사역을 하고 있다. 2017년 1년 동안에는 철원무적부대와 화천열린교회 등 10여 차례 지역사회를 무료로 섬겼다. 지난 10월 21일에도 양구교회 바자회에서 홀리클럽 부회장 이용규 장로(영광한의원 원장, 석사감리교회)와 홀리클럽 회장 김종연 장로와 임원들이 함께 봉사사역을 펼쳤다.

종교개혁500주년 춘천장로교연합회 대부흥성회



2017 춘천장로교연합 대부흥성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10월 29일(주일)부터 11월 1일(수)까지 저녁7시에 춘천성광교회(조용아 목사)에서 열렸다. "다시 개혁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 부흥성회에는 임희국 교수(장로회 신학대학원 역사신학)가 첫째 날 주일 저녁을, 박용규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역사신학)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 말씀을 전하였다. 10월 31일(화) 오후2시에는 목회자 세미나로 "종교인(목회자) 과세 설명회"가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의 강의로 있었다.

춘천선교단체 간사 전체 모임



춘천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매년 1회 사역 나눔과 교제를 위한 전체간사모임을 갖고 있다. 선교단체는 순번을 정해 세미나, 스포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올해는 예수전도단(권혁준 대표간사)에서 맡아 세미나를 열었다. 1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공간 나눔에서 열렸는데, 강사에는 YWAM에서 초창기부터 사역을 하셨던 홍장빈 목사가 맡았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비결을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참여한 간사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이 날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와 서기 김용도 목사(푸른초장교회)가 참석하여 점심을 대접하였고, 쉽지 않은 현장 사역을 하는 간사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71차 춘천모임

복음적 평화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



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71차 춘천모임(이병철 목사)이 11월 13일(월)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이 날 강사인 강디모데 전도사(엔케이피플 선교회)는 '통일세대와 북한선교'(딤후2:20-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강전도사는 12세에 탈북한 후, 현지 사역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감옥에 갇히기를 수차례 겪은 후 한국에 들어온 청년이다. 지금도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동역자들과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주께서 이끄셨던 간증과, 신실한 신앙고백을 들려주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12월에 갖는 72차 6주년 춘천모임은 12시간 기도회(오전10시~저녁10시)로 진행된다.

예수나라성회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열린 예수나라성회가 10월 11일(수) 오후2시에 호반체육관에서 있었다. 현재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한반도의 상황을 주께 아뢰고자 전국에서 중보기도자들이 모였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였고, 민족적 사명 감당과 다음세대를 위해 간절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두란노춘천아버지학교 55기 수료



좋은 아버지가 되자!는 목표로 개설된 두란노춘천아버지학교(지부장 김승구 장로) 55기가 5주간 과정(10/16~11/11)을 마무리하고 11월 11일(토) 오후2시에 주향교회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출신인 28명의 섬김이가 함께 했고, 12명의 중보기도팀(팀장 이경수 장로, 순복음춘천교회)이 기도로 지원했다. 총 진행을 맡은 염노섭 권사(소양제일성결교회)는 "20명이 지원해서 100% 출석을 하며 20명이 수료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28명의 섬김이들과 8명의 주향교회 중보기도자들을 포함한 12명의 중보기도팀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다. 이번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알콜중독이었던 새신자 박종익집사(홍천)는 아내와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아버지학교가 열리는 곳에 스텝으로 꼭 참여하겠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얻었다. 56기는 열린 아버지학교로 홍천군 사회복지회관에서 11월 25일(토)부터 4주간 진행된다. 57기는 춘천초대교회에서 2월에 예정되어 있다.(문의: 010-3902-5883)

청소년감동캠프 소양초등학교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지부장 김승구 장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감동캠프가 지난 소양초등학교에서 10월 14일(토), 21일(토)에서 열렸다.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부모 포함 30명이 참여하여 두란노아버지학교 팀의 섬김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감동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가족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세대 간 소통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와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알게 되고, 학생들은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님께 하는 세족식을 통해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는 자녀들과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차후에 개최되는 청소년감동캠프는 11월 28일(화)과 12월 4일(월)에 홍천중학교에서 4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이 9월 30일(토) 오전10시에 장로교단 섬김으로 춘천우리장로교회(김원중 목사)에서 한장협(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주최로 있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칠 목사) 주관으로 열린 본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와 도시문화생활의 첫 체험을 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탈북자 종교체험은 순복음교단에서 섬기게 된다.

제31회 춘천연합찬양축제



춘천시 청소년장학금 및 아프리카 부룬디 가축지원을 위한 제31회 춘천연합찬양축제가 11월 11일(토) 오후6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춘천연합찬양축제는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월드비전 춘천지회 주최,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8개 찬양대가 참여하였다. 박윤경 아나운서(강원CBS)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 참여한 찬양대는 춘천성도교회 호산나찬양대, 순복음춘천교회 빌립보찬양대, 춘천중앙감리교회 아도나이찬양단, 순복음춘천교회 갈릴리찬양대, 춘천온누리교회 온누리찬양대, 춘천동부교회 갈렙찬양대, 춘천안디옥교회 연합찬양대, 익투스여성합창단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찬양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제20회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제20회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단장 강연숙, 지휘자 손유리애, 반주자 경유림) 정기연주회가 2017년 11월 18일(토) 오후6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박윤경 아나운서(강원CBS)의 사회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는 올해 한 해 연습과 선교 공연을 통해 닦아진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난타와 워십, 독창, 중창, 아카펠라, 자모회 찬양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였다.

제10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개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는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자, 지역화합의 축제 한마당인 "제10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를 10월 20일(금)~21일(토)까지 이틀간 개최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탁구선교회가 주관한 대회에는 춘천시내 탁구 동호회 등 17개팀, 약 18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남자단체, 여자단체, 남자단식, 여자단식, 혼합복식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올해로 10회째 탁구대회 여는 순복음춘천교회는 사랑행복축제, 택시데이, 사랑의 무료 진료, 문화예술축제, 혜민사랑의 집(무료 급식), 지역교회 및 불우이웃 사랑의 쌀 전달, 지역행사 및 군경, 하나원 섬김, 사랑행복축제 수익금 및 물품 춘천시 전달, 정기연주회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 발전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강원경찰선교대회 개최



강원지방경찰청장(치안감 최종헌)은 2017년 11월 9일(목) 오후2시에 1층 대강당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강원경찰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취재 · 사진 / 이은정

교계동정

북부노인복지관 개관식 :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2시 / 북부노인복지관(충영로 124)
교회음향세미나 :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10시 / 야마하 뮤직 코리아, 신성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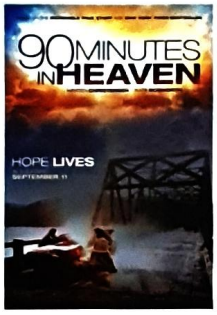
총회 소식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총회 김정호 신임 회장(춘천제일장로교회) 선출
춘천홀리클럽 총회 임윤식 신임 회장(순복음춘천교회) 선출
춘천교경협의회 총회 : 11월 29일(수) 오전11시 / 춘천경찰서
춘천장로교연합회 총회 : 12월 6일(수) 오전11시 / 동부교회
춘천침례교연합회 총회 : 12월 12일(화) 오전11시 / 거성침례교회

주요행사

성탄트리점등식예배 : 2017년 12월 3일(주일) 오후4:30 춘천역 광장(설치: 춘천역, 중앙로 로터리)
성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 2017년 12월 연말까지 (신협 131-002-368965 춘천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 2018년 1월 11일(목) 오전11시 / 춘천동신장로교회(이병서 목사, 동면 후만로 145)

영화이야기



90 미니츠 인 헤븐 (90minutes in heaven)

1989년 아름다운 아내와 딸 그리고 쌍둥이 둘인 아이 셋을 둔 행복한 젊은 목사가 있었다. 그는 교회 개척컨퍼런스에 참가하고 빗길에 차를 몰고 돌아오는 중 텍사스 주의 다리 위에서 커다란 트럭과 다중 충돌로 즉사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그 현장을 지나치지 못해 뛰어들면서 순간적인 찬송과 기도 중에 기적적으로 회생되는데 그가 바로 던 파이퍼 목사이다. 던은 온몸의 뼈들이 심하게 손상되어 침대에서 생활하며 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된다. 그는 그들의 위로와 간호 및 도움을 거부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주위를 힘들게 하는데...

침례교 목사로 일 년 병원 생활 동안 두 주의 중환자실, 서른네 번의 수술을 받은 실제인물인 던 파이퍼 목사의 간증을 담은 책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가 바로 이 〈90 미니츠 인 헤븐〉, 즉 '천국에서의 90분' 이다. 영화포스터 제목을 영어 원문 그대로 표기했다.

이 영화 역시 필자가 과거 발표한 바 있는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 (Heaven is for real)〉, 〈미라클 프롬 헤븐(Miracles from Heaven)〉 같은 일종의 천국기행간증인데 그러한 내용들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가급적 경계해야 할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영화들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감상하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화들의 주인공이 체험한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맹목적 동경이나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의 성찰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그들의 체험을 믿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떠나 그 체험을 통해 또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고 강건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진작 소개한 두 영화들이 주로 아이와 청소년이 주인공이었다면 이 영화는 성인이고 목사라는 점이 다르지만 이 영화와 더불어 가족의 사랑이 공통적인 중심이 되고 있어 우선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와 정서로 그 미장센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성경말씀과 성도들의 우애가 중심이 되어 있어 이단적이거나 뉴에이지 같은 성격의 그림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영화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믿음의 진정한 정의와 태도인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믿음 안의 선행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즉 우리가 선행을 베풀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나의 선행만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정의(定義)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 비행의 꿈을 가족과 함께 이루어가는 유명한 영화 〈에스트로넛 파머〉를 만든 마이클 폴리쉬가 감독했으며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은 헤이든 크리스텐슨이 던 파이퍼 목사역을, 〈슈퍼맨 리턴즈〉에서 로이스 레인 역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유명한 케이트 보스워스가 던 목사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아내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러닝타임 121분)

글/ 김춘배 화백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 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협은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3702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1단지사장집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춘천목회자 섹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일시 : 매주 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나눔교회
문의 : 010.5521.3779

교회음악(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7시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1층
문의 : 010.6375.8874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문의 : 033.263.5455(입원상담)



참가대상 (자격) 강원지역 청소년 · 청년(강원지역 정통교단 소속 교회 청소년, 청년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

참가곡 창작곡 및 기성곡(편곡 가능)

참가신청 **11/25(토) 오후6시** (참가비 5만원)

예선 2017년 12월 2일(토), 장소 및 시간 개별공지

심사 1차 : 녹음 파일 및 악보 심사 / 2차 : 예선(오디션) / 3차 : 본선 (10개팀 공연)

시상 총 본선진출 10팀, 기관장 상장과 장학금 시상 (각300~30만원 상당)

접수 신청서, 담임목사 추천서 및 악보, 녹음파일 이메일 접수(cjs3827@empas.com)
(신청서, 추천서 양식다운 : 다음카페 "제1회 강원지역 청소년청년 ccm경연대회"
http://cafe.daum.net/gangwonccmcontest)

문의 010-4325-1968, 010-4423-3827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순복음춘천교회
후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춘천시기독교연합회, 국민일보, 강원CBS, CTS영서방송, C채널, GOODTV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강민승 강인찬 강석봉 강옥자 강은주 고순덕
국주영 곽해옥 권경애 권어림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권현정 권혁채 김경순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도희 김명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성희 김수국 김수연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영관 김영명 김영선 김영수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자 김용배 김옹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일섭 김칭미 김정숙
김정의 김종옥 김종은 김증익 김증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진숙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혜란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남궁자 남상구 남하은 노정호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 현 박감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미정 박민수 박민순 박병화 박상준
박상현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승국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완영 박은경 박은혜 박정애
박춘자 박평숙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현애 성기온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경화
승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항순 신건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옥섭 신옥자
신온수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미선 양봉남
양혜경 어금옥 엄기홍 엄근혜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제영
오준영 오흥금 오흥수 용영옥 원예슬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옥
윤정희 윤학병 윤흥묵 이가현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대환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보람 이봉연 이상만 이선임 이성숙
이성은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옥
이연화 이영애 이영훈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유진 이윤규 이윤숙 이윤주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주영 이지영 이진주 이충훈 이태우
이현석 이혜란 이혜옥 이희화 임경혜 임덕수
임소희 임쌍용 임영광 임우선 임인숙 임재철
임청숙 임정이 임청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지원 장창순 전윤배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미경 정미선 정석호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차동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은산 조명숙 조민지 조성경 조소현
조원순 조진경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지정훈
차경자 최재옥 채재관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미혜 최선이 최성현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영달 최옥순 최은영 최은순
최인숙 최정자 최종대 최종인 최종호 최재중
최효숙 하윤옥 한건영 한명수 한순수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한희선 한희현 함종현
허순복 허인영 현순덕 현연희 현재용 홍성애
홍세표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춘애 홍택기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영희 황은주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등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성감리교회 옥산포교회 은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참사랑내과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우리소아과
장기방문요양센터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성시화운동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